

200자 안내

멋진 여자 멋진 남자

박덕은 지음

유명인물의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일화 속에서 진정한 "멋진 여자와 멋진 남자"를 발견하고, 짝막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삶의 지혜와 철학을 깨닫게 하는 책. 이 책에서 엮은이는 진정한 멋에 대한 비전으로 기지와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으며, 자신의 해석을 붙여서 멋진 여자와 남자를 얘기한다. 우리 주변 및 과거역사에서 기지가 뛰어난 지조 있으며 용기있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개척정신과 유머 그리고 배짱이 두둑한 남자의 이야기를 실었다.

서지원 / A5신 / 318면 / 5000원

슬취한 백조

쿠르트 쿠젠버그 지음 / 김창환 옮김

83세의 일기로 타계한 스웨덴 출신 독일작가의 해학과 풍자가 담긴 소설. 평생 단편소설만을 고집한 작가는 엽기적인 세계를 주제로 한 기지에 넘치고 동화적인 문체로 명성을 얻었다. 공원 관리인이 백조와 함께 술을 마시러 술집에 드나든다는 작가의 발상 자체가 재미있다. 가벼운 소재로 시작하기 때문에 독자를 끊임없이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이지만, 철학이 담긴 웃음을 선사함으로써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화동 / A5신 / 238면 / 5000원

제5도살장

커트 보니거트 지음 / 김종운 옮김

신감각파 또는 포스트모더니스트라 불리는 작가의 경험담이 짙게 깔린 소설로 시대에 대한 통찰과 역동성이 엿보이는 작품. 2차 대전 중 연합군 공격에 의한 독일 드레스덴 화염폭격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다. 소설의 제목 또한 예전에 도살장으로 쓰였던 드레스덴 수용소에서 따온 것인데,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가의 경험이 주인공에게 전이되어 전쟁의 처참한 살육현장 대신 가공적 천체인 트라팔카 성에서 "연대순이나 시공을 초월한" 환상적 여행을 하게 만든다.

플리미디어 / A5신 / 242면 / 5200원

주부야말로 꿈의 자유업

나가사와 노부코 지음 / 박경희 옮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도 자신의 세계가 훨씬 넓어진다고 하는 저자의 주장처럼 결혼 후 뭔가 자기 일을 갖고 싶어하는 주부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한 일본 주부의 체험기. 결혼과 함께 여자는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말 외에도 "자신"이라는 말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한다.

공간 / A5신 / 216면 / 5000원

하얀 장미

알리스테어 맥클린 지음 / 이재중 옮김

「나바론」 「독수리 요새」 등의 작품을 통해 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다루어온 작가의 서스펜스 넘치는 소설. 엄청난 보물을 안고 해저에 묻힌 DC-3 항공기 동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일 갑부와 마피아도 손잡기를 거부하는 냉혈한 그리고 정신병적인 킬러가 등장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가족들의 잔상을 찾아 그 암투 속에 끼어들고 끝내는 적들이 처놓은 사슬을 끊어 버리고 바닷속으로 빠져든다.

동쪽나라 / A5신 / 344면 / 5000원

건전록

무스 무네미쓰 지음 / 김승일 옮김

근대사의 격동기인 19세기 말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역임했던 저자가 회고록 식으로 기록한 일종의 외교 비망록.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이 책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로부터 청일전쟁, 조선내정개혁문제, 청일강화조약 비문교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외교기밀 내용이 담겨있다. 외교노선을 담당했던 만큼 저자는 자신만의 외교적 관점에서 의거해 당시 국제간의 이해관계와 일본정부의 외교노선을 증언하고 있다.

범우사 / A5신 / 370면 / 7000원

너는 물음표 나는 느낌표

김선영 지음

소설 「애니깽」으로 잘 알려진 작가가 사랑에 대한 감수성을 섬세하게 스케치하였다. '사랑크로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한순간 놓치기 쉬운 사랑의 감정들을 작가의 감성과 언어로 형상화 하였다. 인스턴트 사랑만이 난무하는 신세대들의 사랑 풍속도와 옛정에 이 끌린 향수 또는 짝사랑 등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집합시켜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 또는 충고를 던지듯이 중간중간에 명사들의 사랑의 메세지가

담겨 있다.

좋은아침 / A5 / 192면 / 4300원

두 여자 (전3권)

아일린 굿지 지음 / 박길부 옮김

유명한 영화배우의 두 딸인 애니와 로렐은 어머니가 자살한 후에 외삼아버지의 성폭행을 피해 뉴욕으로 도망친다. 두자매는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사랑을 배운다. 작가는 지적인 주인공들의 사랑애기와 삶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여자에게 있어 일이라는 것과 그 일을 성취해서 성공하는 삶의 극복을 주제로 삼고 있다. 가장 통속적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부가하는 소설.

예하 / A5신 / 350면 내외 / 각 4900원

결정이 결정한다

김성희 지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의사결정분석 및 응용'을 강의하는 저자가 실제 기업관련 실무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책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의 실무 관리자 및 최고경영자, 그리고 경영컨설턴트 등을 위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논리적으로 체계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과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영사 / A5신 / 302면 / 5000원

평온한 삶

마르그리트 뒤라스 지음 / 박인철 옮김

「연인」의 작가로 잘 알려진 뒤라스의 문학작품 매력에 돋보이는 장편소설. 작가는 베르나르 일가의 살인과 자살사건을 추리적 구성과 빠른 사건진행으로 풀어간다. 제롬이라는 부정인 인물이 등장하면서 베르나르 일가는 세번에 걸친 죽음으로 빠져들지만, 딸인 프랑신느는 자기가 야기시킨 죽음에 대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소설에 대해 평론가 크노는, 당시 유행했던 부조리 철학을 언급하면서 "여자 손으로 씌어진 「이방인」"이라고 평했다.

성훈 / A5신 / 240면 / 4500원

계간지

SF 매거진 (93년 여름호)

[칼럼] 꿈은 언젠가는 실현되는 것이다(조명준)

[기획특집] 세계 SF영화 역사(박상준)

[세계의 SF] 슈퍼휴고(박상준)

[신세대 인터뷰] 우리 SF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과 친숙한 작품 써야(소준선)

[SF 스테디] SF, 아이작 아시모프와 앨빈 토

플러에게 듣는다(박상준)

[SF 갤러리] 모순(하형욱)

[클로즈 업]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져야(소준선)

[SF 저널] 사이버 펑크(하재선)

[SF 탐방] '한국우주소년단'을 찾아(유강희)

[SF 명작감상] 'SF의 성전' 타우제로(유강희)

(주)나경문화 / B5 / 120면 / 비매품

작가세계 (93년 가을호)

[홍성원 특집] 정글의 논리에 의해 역조명된 인간의 세계(김만수) / 움직임의 미학을 찾는 향해일지(이경호) / 남성문학의 세계(김치수) / 도전의 미학(김인환) / 「면동」의 역사의식과 문학적 전망(오성근) / 홍성원 문학연구의 방향(김만수) / 짚맛으로 남은 사람들(홍성원)

[시] 오규원 / 천양희 / 이태수 / 이성복 / 최승호 / 채호기 / 강연호

[소설] 숲에서 숲으로(최윤) /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구효서) / 모든 벽은 문이다(윤영수) / 푸른 裸婦(장태일) / 지하철 치환에 관한 한 보고서(권현숙)

[비평] '지상과 땅'과 범성에 이르는 길(서경석) / 엮과 당김(김정란) / 제의와 희생양 그리고 두 이미지(양진오)

[문화시평] 마임의 속도학(안치운)

[해외작가특집] 줄리앙 그랑 /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김지영) / 황량한 바닷가, 모호한 불안감(모리스 블랑소) / 작업중인 작가 장 루도 / 비껴가는 삶, 그 여로 / 코페루아 왕(줄리앙 그랑)

세계사 / A5신 / 408면 / 7000원

창작과 비평 (93년 가을호)

[특집] 90년대 중반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 새로운 시대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위하여(원종찬) / 향후 정세와 민중운동의 전망(이해찬) / 노동조합운동의 나아갈 길(권영길) / 여성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모색(이재은) / 전환 시대의 노동운동의 방향(김승호) / 김영삼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과제(이영희) / 진보를 위한 단상(박준영)

[논문] 지구시대의 민족문학(백낙청) / 김수영의 시와 시론(정남영) / 통일체제를 지향하는 '분단체제'의 탐구(정대화) / 한국인의 제3세계 투자(신윤환) / 이순신의 戰死와 자살에 대하여(박혜일) / 20세기말의 문화제국주의(J. 페트라스)

[문화시평] 민중미술의 현재, 더 큰 현실에 눈뜨기(박신의)

[산문]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보다(이문구)

[시] 고은 / 민영 / 강민 / 김준태 / 김용택 / 김정미 / 김용락 / 이규배 / 박형진

[소설] 각시봉어를 찾아서(최일남) / 등꽃(김

영현) / 꿈(공지영) / 끝나지 않은 노래(김별아)

[서평] 왜 시를 읽는가(신경림) / 자명한 세계로부터의 거둬나기(정재찬) / 분화된 역사의 식과 휴머니즘의 파탄(황광수) / 우리 시대 권력의 존재방식에 대한 소설적 묘사(임진영) / 이식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넘어서(최원식) / 친일파의 재판구조와 그 역사적 성격(성대경) / 성숙한 균형감각(정호웅) / 신기한 발견과 감흥의 연속(이현주) / '참여'하는 법철학(안경환) / 포스트맑스주의 비판의 문제(신광영) 창작비평사 / A5신 / 430면 / 6000원

문학과 사회 (93년 가을호)

[특집] 패러디, 모방에서 창조로: 패러디나 자살이나(김진석) / 작가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장경렬) / 이질적 장르의 합성과 패러디(이형식) / 새로운 사진 활동에 대한 비평적 소고(이영철) / 음악에서의 창조와 모방(홍승찬) [오늘의 한국 문학] 문학 공간: 1993년 가을(편집동인) / 정든 유곽에서 아버지 되기(김혜순) / 개인과 역사(김치수) / 문학의 위엄(권오룡)

[박상룡과의 대담] 색에서 공으로(성민엽) [비평] 딸과 죽대 그리고 힘의 비평(조남현) [테마 서평] 상황의 도전과 문화의 응전(김성기) / '반정치' 시대의 정치(김영수) [시] 오규원 / 최승자 / 유하 / 조은 / 차창룡 / 엄원태 / 양진건 [소설] 불의 祭典 1(김원일) / 宣告(이승우) / 백설재(이석범) / 熱帶夜(박상우) 문학과학사 / A5신 / 468면 / 5000원

과학사상 (93년 가을호)

[논문] 혼돈과 無의 極(김용정) [특집] 혼돈과 질서: 물리학적 질서의 새로운 차원(김두철) / 혼돈이론과 경제학(정운찬) [토론] 비선형 동역학과 혼돈(국제 워크숍 참가자) [논단] 莊子の 철학체계와 정신 경지(김충열) / 근대 일본의 과학기술 수용사(후루야 게이치) / 경락연구의 현황(박희준) [해의논단] 신경과학은 인간본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제임스 존스) / 믿음, 이론과 메타이론의 패러다임(로저 스페리) 범양사출판부 / A5신 / 256면 / 4500원

역사비평 (93년 가을호)

[특집] 전향과 변절의 역사: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영광과 오욕의 날카로운 대치점(서준식) / 민족 부르주아지에서 황국신민으로(윤해동) / 환상에서 환멸로—카프작가의 전향문제(김재용) / 4·19, 6·3세대 변절 변신론(고성국) [기획 1] 설화를 통해 본 한국고대의 사회변

동: 온달 서동설화(임기환) / 화랑도 이야기(김기홍)

[기획 2] 남북에서 상반되게 평가하는 인물: 김유신(강봉룡) / 이황(고영진) / 김옥균(조재곤)

[시론] 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라(장두환) [특별연구] 불교계의 친일인맥(임혜봉) [역비논단] 제헌의회 소장과파의 활동과 역사적 재평가(백운선) / 한말 영화의 전래와 민중생활(조희문)

[해의동향] 소련 동유럽 지식분자의 고뇌와 그 변모(홍윤기)

[조선시대 화가들의 삶과 예술] 단원 김홍도—가장 조선적인 불세출의 화가(유홍준)

[쟁점]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이영훈)

[집중연구] 이완용의 변신과정과 재산축적(임대식)

역사비평사 / A5신 / 388면 / 5900원

詩와 詩學 (93년 가을호)

[시인과 시인을 찾아서] 金宗吉 편: 대담(윤호병) / 근작시선

[특집] 현대시인 집중연구—任永祚편: 내가 아는 임영조(이동하) / 임영조 시인을 찾아서(오선홍) / 처용·허수아비·갈대(신범순) / 소시민의 내면 성찰과 정체성 확립(권정우) / 임영조 대표 시선·연보·연구서지

[시 창작 강좌] 나의 시 이렇게 쓴다: 쓰는 시에서 쓰여지는 시로(강인환) / 시적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박이도) / 시상은 전율처럼(이기철) / 흥겹고 재미있게(임보)

[신 연재시론] 시란 무엇인가(오세영) [在外國한민족 문학특집] 미국 교포 편 시와시학사 / A5신 / 340면 / 6000원



헵시바

많은 뜻을 담고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일을 도모하는 일터입니다
많은 유익을 드리는 동반자입니다

디스켓을 주시면 이런 서비스가...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류와 일반단체본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새로운 출판문화의 창출!
이것은 바로 헵시바의 바램입니다.
이 바램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열매로서 단행본 출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출판문화인 여러분!
새로운 출판문화의 창출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디스켓 물량일 경우 제공되는 자동교정 서비스

- 사이시옷 (화제거리→화젯거리, 황토길→황톳길 등)
- 된소리 (홀죽→홀쭉, 훈구명→훈꾸명, 할덕→할떡 등)
- 부사형 어미 '이', '히' 구분 (조용이→조용히, 깨끗이→깨끗히 등)
- 빈도수가 높은 외래어 처리 (앰블런스→앰블런스, 코오피→커피 등)
- 변칙 (젓어→저어, 담그어라→담가라, 가르어→갈라, 반가웠다→반기웠다 등)
- 보조어간 '이', '히' 용법 (높히다→높이다, 덮히다→덮이다 등)
- 어간 끝 'ㄱ'의 생략 (빌읍시다→빌시다, 살을수록→살수록 등)
- '렐', '열', '롤', '울' 용법 (분렐→분열, 합격울→합격률 등)
- 어미 뒤 조사 '요' (하리오마는→하리오마는, 하지오마는→하지오마는 등)
- 지시대명사의 띄어쓰기 (이것, 그후, 그쪽, 그중 등)
- 기타

디스켓 물량 처리의 특장(特長)

- ▶ 신속성—단행본 300쪽 분량의 경우 통상 1-2일 안에 처리해 드립니다.
- ▶ 정확성—컨버전할 때 내용이 누락되거나 바뀌는 등의 오류가 없습니다.
- ▶ 경제성—헵시바한글다듬기를 서비스하면서도 일반 디스켓 물량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정 시간과 교정 비용 대부분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오타교정, 책임교정, 편집대행도 해드립니다.)

• 헵시바한글다듬기 • 데이터분석을 통한 압축교정 • 전집류의 용어통일 작업 • 외국어 교정 등, 저희가 개발한 이상의 아이템들이 귀사의 발전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전산사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603호 헵시바. ☎ 265-9240~1. Fax: 263-1992